

재발성 견관절 탈구 환자의 관절경 및 LASER 기술을 이용한 치료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이광진, 변기용, 오홍록, 송재기, 김상범

서론

재발성 견관절 탈구는 Rowe 등에 의해 외상성 및 비외상성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외상성 불안정 견관절은 과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였다. 다방향성 불안정 견관절은 비외상 군으로 분류되어서 수술적 치료가 소극적이었으나, 1980년 Neer 등이 하방 및 다방향성 불안정 견관절에 대하여 상완골 경부에서 하관절낭의 shifting과 Bankart 병변의 복원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보고한 이래 수술적 처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정형외과 영역에서 시행되는 관절경 기술 및 LASER기술은 작은 수술창과 적은 출혈 및 추후 이차적 수술의 용이함을 장점으로 하며 점차 다양한 정형외과 영역으로 기술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10례의 재발성 견관절 탈구를 대상으로 하여 관절경하 관절낭의 강화 방법 및 LASER를 이용한 수술적 치료의 결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995년 3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재발성 견관절 탈구를 보이는 46례중 LASER를 사용한 10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의 연령은 15세에서 53세까지로 평균 28.5세였으며 남자가 9례, 여자가 1례였다. 7례에서 심한 견관절의 외상 병력은 없었으며, 우측이 3례였고 모두 오른손잡이었다.

이학적 검사상 상지를 하방으로 당길 때 견봉과 상완골 골두 사이에 골이 생기는 sulcus sign은 4례에서 나타났으며, 전방전위 검사 상 6례가 양성, 인지 검사 상 8례가 양성을 나타내었고, 수술전 마취 하에서 이학적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불안정성의 최종 방향을 결정하였다.

임상 증상으로서 7례 환자에서 관절낭의 하방에 부하를 가하였을 때 불쾌감과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머리 위에서 상지를 움직일 때 불안정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은 양측 견관절의 전후방 및 액와사진, Stryker-notch view, West-point view, Apical oblique view, Didee view를 촬영하였으며, 병력이나 이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있는 관절의 핵자기 공명영상 소견상 5례에서 Hill-sach 병소, 2례에서 SLAP 병소를 보였다.

견관절의 disability의 발생에서부터 수술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2개월에서 20년까지였으며, 평균 7년 6개월이었다. 10명의 환자 전례에서 견관절 내를 관절경으로 검사한 후, 6례에서는 관절경하에서 전방 혹은 전방 및 후방 관절낭의 강화술 및

Holmium-YAG LASER(Eclipse surgical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관절낭의 shrinkage를 유도하였고 4례에서는 LASER만을 이용하여 관절낭의 shrinkage를 유도하였다.

수술 후 견관절을 내회전한 상태로 고정한 후 6주간 Valpeau bandage를 시행하고, 슬후 6주부터 능동 및 피동 관절운동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의 결과는 Neer의 분류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누어, 만족은 수술 후 견관절 탈구나 아탈구와 같은 재발을 보이지 않고, 동통이 없으며,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견축에 대해서 동등한 근력을 가지는 경우와, 10도 미만의 굴곡제한과 40도 미만의 회전 제한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결 과

10례의 관절경 소견상 8례에서 관절낭의 이완, 5례에서 SLAP 병변, 5례에서 Bankart 병변, 4례에서 Hill-Sachs 병변이 관찰되었다.

관절경하에서 전방 혹은 전방 및 후방 관절낭의 강화술과 LASER를 동시에 시행한 6례 중 전례에서 수술 동통 및 운동범위의 제한이나 외래 추시상 재탈구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LASER만을 이용하여 관절낭의 shrinkage를 유도한 4례중 1례에서 슬후 동통 및 운동범위의 제한이 나타났으나, 나머지 3례에서는 외래 추시상 재탈구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견관절의 운동범위도 정상범위를 보이고 있다.

결 론

재발성 견관절 탈구의 치료로서 관절경하의 강화술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기이나 슬후 재발이 없고, 동통이 없는 관절운동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LASER를 이용한 관절낭의 shrinkage도 치료 방법의 한 수기로 추천될 만하다고 사료된다.